

'미래 창의인재 양성 지원'

교육부·대교협,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예비대학 선정 자율개선대학 확정 시각 대학에 사업비 20억 내외 지원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총 73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5개 권역에서 총 11개 대학을 '20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 사업' 예비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비 대학은 국민대·성균관대·중앙대(수도권), 강원대·대구한의대(대구·경북·강원권), 대전대·충남대(충청권), 전주대·호남대(호남·제주권), 경성대·동아대(부산·울산·경

남권) 등 5개 권역에서 2개 대학 인원이 선정됐다.

11개 대학은 이달 말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부정·비리 등으로 자율개선대학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대학혁신지원 시범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가 최종 선정되는 각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대학 규모, 교육여건 등을 반영한 20억원 내외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실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대학혁신전략, 종합재정부자계획,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예비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73개 대학 가운데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1단계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62개교를 걸러냈다.

이후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30%)를 거쳐 최종 선정 대학의 2.5배수인 총 28개 대학을 가려냈고 다시 2차 면접평가(70%)를 실시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1·2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예비 대학 11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권역별로 2개교를 배정

하되, 권역별 경쟁률(4.5대1~9.5대1)을 고려해 수도권은 3개교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사업 참여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혁신정책관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지원하고 하반기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이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여성 초청, MRI 검사 진행 원광대학교병원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고 있는 달석증 환자 스테파노 나탈리아(66)씨를 초청, 사람의 인술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스테파노 나탈리아씨가 원광대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충남 인권교육 워크숍 17~18일 군산서 열린다

전북과 충남의 교사가 함께 모여 인권교육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충남·전북 인권교육 교사 워크숍이 17~18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에는 전북과 충남교육청의 인권교육 관계자,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 관련 활동 교사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첫날인 17일 오후 3시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의 정책과 고민'에 대해 김문광 충남교육청 교사와 이창수 전북교육청 장학사의 발제가 있던 뒤,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

토크콘서트에는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전 월간인권평화교육 발행인)과 오동선 전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장(이리고현초 교사)이 나와 인권 일반 및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침해 상당 방법 및 처리 사례들, 인권행동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어 오후 8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2일차인 18일에는 오전 9시30분에 두 지역의 인권교육 교사 워크숍의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워크숍을 마무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워크숍은 충남과 전북의 인권교육 관련 정책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안착과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지속적인 협의의 관계를 통해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등에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 CK-1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 학생들이 최근 일본을 찾아 비파괴 검사 분야 최고의 기업에서 연수 기회를 가졌다.

전북대 IT융복합사업단, 일본 비파괴 최고 기업서 연수

비파괴 실용 강의·일본어 강좌 등 질 높은 교육 이뤄져

전북대학교 CK-1 IT융복합시스템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송철규) 학생들이 최근 일본을 찾아 비파괴 검사 분야 최고의 기업에서 연수 기회를 가졌다.

최근 하계 오프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미국 보스턴에 파견해 세계 최고의 연구소 등을 경험하도록 지원한 사업단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 동안 학생들을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비파괴 검사 전문 기업인 '재팬 프로브(Japan Probe)'에 보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초음파 레벨 1, 2의 이론 강의 및 실습, 랩뷰(Lab View) 초음파 송수신파형 생성 및 데이터저장 실용 강의를 중심으로 강의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업체에 직원이 직접 학생들에게 일본어로 강좌도 진행해 짧은 시간 안에 질 높은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후지산 등반, 요코하마 역사 및 문화탐방, 아사히 맥주 공장 견학 등의 문화 일정도 함께 제공 학습 이외에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도 가졌다.

위수찬 학생(전자공학부 3년)은 "평소에 관심있던 분야인 비파괴 검사와 관련된 일본 유명 회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계속 이러한 좋은 기회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지원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대, 과기정통부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선정

군산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하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에 선정되어 7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청년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을 운영하며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을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4차산업혁명 핵심인재 1,2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산대학교는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장민석 교수팀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드론 SW개발 전문가 과정'이 선정되었고, 내년 2월까지 7개월 동안 960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드론분야 통합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재를 배출·취업시킬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교육은 창의성교육, 기초교육, 3D모델링 및 3D프린팅 교육, 심화교육과

정도로 운영된다. 작품아이디어 도출-제작-취창업까지의 전과정을 포함하는 드론통합교육모델을 정립하여 드론 교육의 기본모델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에는 기업 30곳, 연구소 4개소 등 총 34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한다.

총괄책임자인 장민석 교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의 지역 내 유치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연수생은 개발과정 뿐 아니라 취창업 멘토링을 포함한 교육과정도 이수할 수 있어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SW융합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사업 등을 운영하며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청년인재 양성에 필요한 많은 노후유를 확보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학부모 대상 온라인 유아 놀이교육 콘텐츠 제공

교육부, 7개 주제 20여개 자료 내달부터 네이버 통해 보급

교육부는 3~5세 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원이 개발한 놀이교육 콘텐츠를 다음달부터 정기적으로 네이버 '부모 i' 주제관(가칭 '놀이 자라미')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놀이교육 콘텐츠는 '방학! 성장을 위한 씬', '조기교육, 빨라서 읽는 것과 읽는 것', '놀이로 관계 맺기' 등 7개 주제를 중심으로 제작된 동영상과 카드뉴스, 글과 그림 등 20여개

자료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란다'를 주제로 연 학부모 대상 워크숍에서 학부모들의 자녀 놀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보 수집 욕구를 확인하고 온라인 놀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교육부가 워크숍에 참석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의 유아 놀이에 대한 관심도는 95.8%로 나타났다. 또 놀이 관련 교육 기회·정보 공유 요청도 63.7%로 파악됐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